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현재와 미래

2023. 3. 14.

금융투자협회 

Contents

Part 1. 금융투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변화의 시작, 자본시장법

1. 은행 중심의 금융업 성장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금융투자산업의 과거
2. 자본시장법 제·개정과 자본규제 변화가 촉발한 금융투자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시작

Part 2. 금융투자산업의 위기와 한계 : 성장의 한계와 성장통

1. 가계자산의 증가에도 늘어나지 않는 금융투자, 공모펀드 정체, 사모펀드 신뢰하락
2. 글로벌 경쟁력 부족, 반복되는 유동성 위기, 핀테크의 도전, 낡은 규제 등 성장의 한계

Part 3. 해외 선진사례의 교훈: EU 자본시장 동맹 Case

1. 성장력 회복을 위해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에서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EU의 노력
2. EU 자본시장동맹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Part 4. 금융투자산업의 미래: Asia Top 3 IB 탄생을 위한 제언

1. 대형 IB 글로벌 진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은행 중심의 금융인프라의 공공화
2. 사적연금 활성화, 공모펀드 활성화, 사모펀드 신뢰회복
3. 자본시장 인프라 경쟁구도 형성, 단기자금시장 안정장치 마련, 투자자 보호 강화

Part 1

금융투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변화의 시작, 자본시장법



은행을 활용한 우리나라 경제성장: 불균형 금융 구조 형성



우리나라는 세계 유래 없는 고도 성장 과정에서 정부보증을 통한 대출기능을 중심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은행이 금융산업의 중심이 됨**

- ✓ 국내 금융업은 정부 주도로 “저축”과 “보증”, “대출” 중심의 은행업을 주력으로 민간기업과 경제성장을 지원
- ✓ 금융의 다른 중요 기능인 투자와 위험의 분산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의 육성은 상대적으로 미흡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을 진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1st Step : 자본시장의 태동 및 성장 (1956~1992년: 36년)

- ✓ '56년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68년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자본시장육성법과 기업공개촉진법 제정되는 등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시 대규모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
- ✓ 1970년대 중반부터 증권투자가 확대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되어 석유파동에 따른 시장침체, '89년 주가지수 1,000p 돌파 등 경제 사이클과 함께 부침을 겪음

2nd Step : 자본시장의 개방 및 통합 (1992~2007년: 15년)

- ✓ '92년 자본시장 개방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95년 코스닥시장, '96년에 주가지수선물시장, '97년 주가지수옵션시장 등 新시장 도입이 활발
- ✓ '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98년 감독기구 통합으로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건전성규제 도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통합(KRX출범) 등 자본시장 규제 및 인프라가 변혁

3rd Step : 자본시장법 제정 및 증권사 대형화 (2007~2023년: 변화의 시작)

- ✓ '07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증권사 대형화를 통한 투자은행 발전 촉진,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도입,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가 진행

자본시장법 제·개정과 자본규제의 변화: 성장의 變曲點

'07년 **자본시장통합법**

- 금융회사 검엄화 확대
 - *금융투자회사의 증권-자산운용-선물-신탁업 등 검엄 허용
- 투자상품 확대 *7개 펀드별 운용대상 제한 폐지
-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 전환
- 제2금융권에 은행결제시스템 허용 등

'11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13년 개정안 시행)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신규업무 허용
 - 기업신용공여, 내부주문, Prime Brokerage 업무

'14년 **NCR 체계 전면 개편** ('16년 新NCR 적용)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
- 적기시정조치 기준 하향: 권고 150%→100%
- 개별에서 연결기준 NCR 도입
- 1년 이내 기업대출: 영업용순자본 차감→ 신용위험으로 반영

'16년 **금융위, 초대형IB 육성정책 발표**

-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발행어음, 8조원 이상 증권사에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부동산신탁 허용
- 3조원 이상에 별도 NCR 적용하고 기업신용공여한도 확대
 - 장기대출자산: 영업용순자산에서 전액 차감→ 일부만 차감 (AAA 1.6%, BBB 8%)
 - 신용공여한도 증액 (기업대출별도 한도 자기자본 100%)

현재까지 총 4개사 발행어음 인가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자기자본 규제(舊 NCR)로 사업모델이 브로커리지 중심의 과거 형태가 유지
- 기업신용공여가 허용되었으나 신용공여에 대한 과도한 자본규제 적용으로 업무가 비활성화
- 새롭게 허용된 지급결제업무도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당시 예상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대된 투자자 효용증대에 못미침

- 정부의 규제개혁 및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다수 효과를 나타나면서 천편일률적인 사업모델에서 각 사별 자기자본을 활용한 사업모델이 다양화
- 특히, 새로운 자본규제인 新 NCR 제도가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영업모델이 자본을 활용한 업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수익성 증대
- 결과적으로 글로벌IB 들의 주요 영역이었던 신디케이트 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대형사들이 업무를 확대하기 시작

변화 Point 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통한 외형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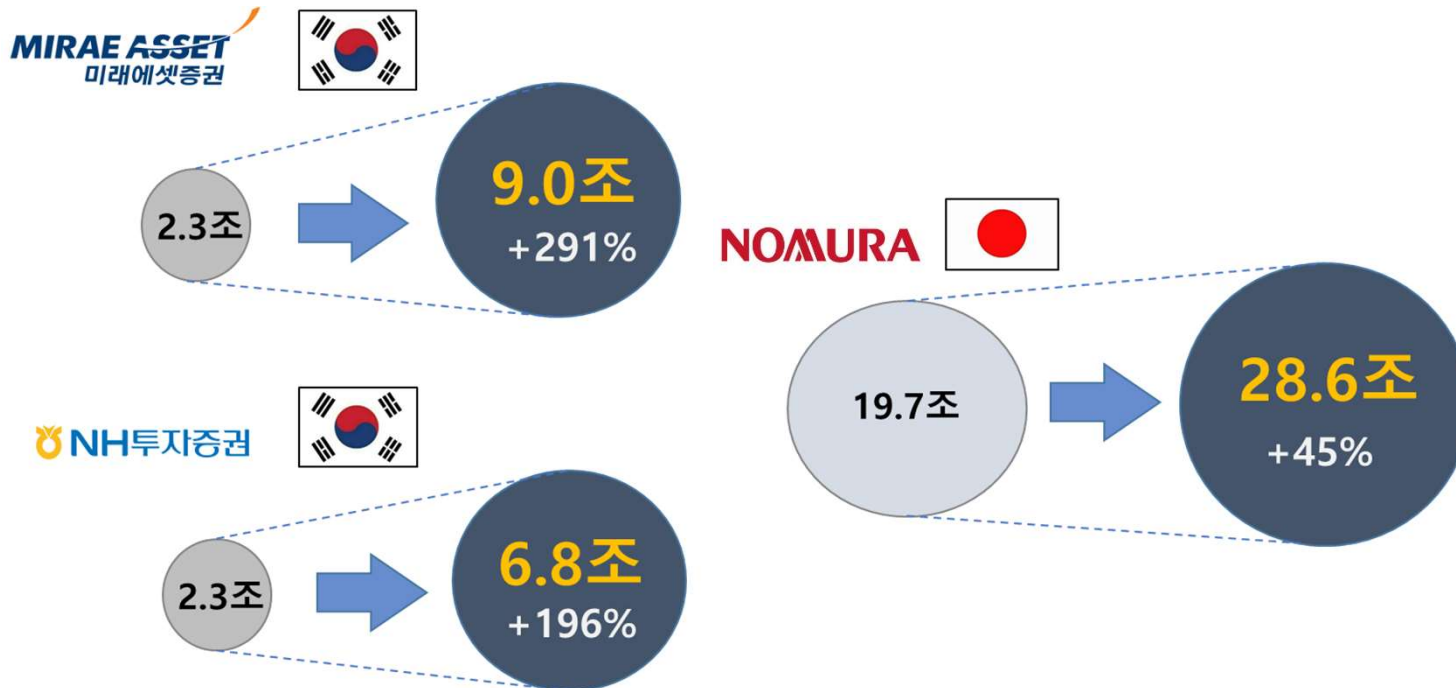
💡 증권회사 자기자본 : ('08년) 35.3조원 → ('22년 3분기) **80.2조원** (👉 127% 증가 ↑)

※ 대형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모(조원)

('08년말) 대우 2.3, 우리투자 2.3, 한투 2.1, 삼성 2.1, 현대 2.3 등

('22년 3분기) 미래에셋 9.0, NH투자 6.8, 한투 6.3, 삼성 6.0, KB 5.9 등

👉 특히, **올해 10주년**이 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대형 증권회사들을 5~9조원의 자기자본을 갖춘 **대형 Player**로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



변화 Point ② : IB 부문의 수익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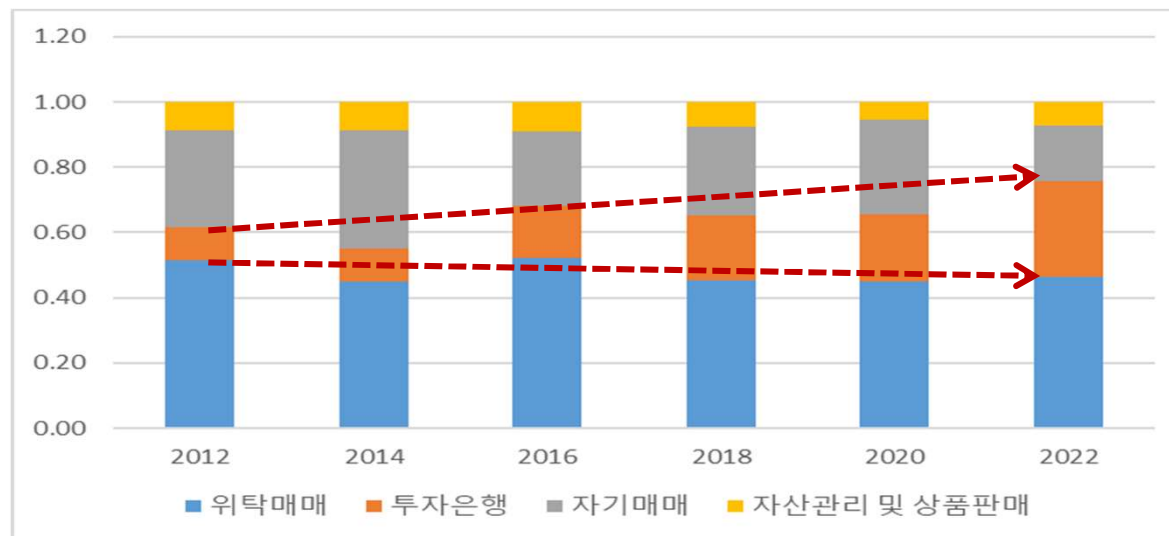
증권회사 순이익 : 1.8조원('08년) → 9.0조원('21년) (↗ 400% 증가 ↑)

* 증권사 ROE : ('08) 7.3% → ('13) 0.6% → ('16) 4.6% → ('20) 9.1% → ('21) 12.5%

증권사 수익구조 : 위탁매매업무 비중 ('08) 59.7% → ('22) 46.3%
IB업무 비중 ('08) 7.5% → ('22) 29.3%

'14년 NCR제도, '16년 초대형 투자은행(IB)제도 도입 이후,
 모험자본을 충분히 활용한 대규모 자본투자 용이, IB손익 증가 등 순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함

증권회사 IB 부문 수익구조 확대



변화 Point ③ : 해외 Business 수익성 개선



해외법인 순이익 : ('15년) 약 200억 → ('21년) 약 3,700억원, **1,800% 증가**

- ✓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법인 자산총계 규모는 '15년 기준 20억 달러(약 2.4조원)에 불과했으나, '21년말 해외법인 자산총계 규모는 258.6억 달러(약 32.7조원)로 14배 증가
- ✓ 해외법인의 순이익도 '15년 기준 약 1,670만 달러(약 200억원)에 불과했으나, '21년 순이익은 305.9백만 달러(3,671억원) 기록(전년대비 62.3% 증가, '15년 대비 약 18배 증가)



자료: 금융감독원('21년 기준)

변화 Point ③ : 해외 Business 수익성 개선 (계속)



해외 진출 증권사는 과거 연락사무소 수준의 역할에서 벗어나 현지화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



아시아권 현지 증권사 인수, 거래 플랫폼 수출, IB 주간사 업무 수행 등 아시아권내에서는 점차 입지를 다지고 있는 중

브로커리지 현지화 및 플랫폼 수출



- 베트남법인 자본금 기준 현지 2위 증권사로 10개 지점 보유
- 인도네시아법인 HTS-MTS 개발(업계 최초)
- 홍콩법인 HKEX Awards 2021에서 ETF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 베트남법인 로컬SNS기업과 협력해 현지맞춤 디지털 금융플랫폼 출범



- 태국 피낸시아 사이러스 증권사와 HTS 계약 진행

글로벌 IB 영역 확대



- 베트남법인 현지기업 회사채 발행 주관(업계 최초)
- 인도네시아법인 현지기업 IPO 성공(업계 최초)

한국투자 증권

- 인도네시아 현지통화표시 공모채권('22.2월 INKP, '22.5월 ADHI) 발행
- 인도네시아 기업(실라갑 사무드라) IPO 주관('22.6월)
- 홍콩법인 현지기업 대상 인수금융 등 활발한 영업



- 베트남 발전소 지분 양수도(\$185MM) 및 싱가포르 전자폐기물 처리회사 M&A 참여(\$140MM) 등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변화 Point ④ : 자본시장 PLAYER 다양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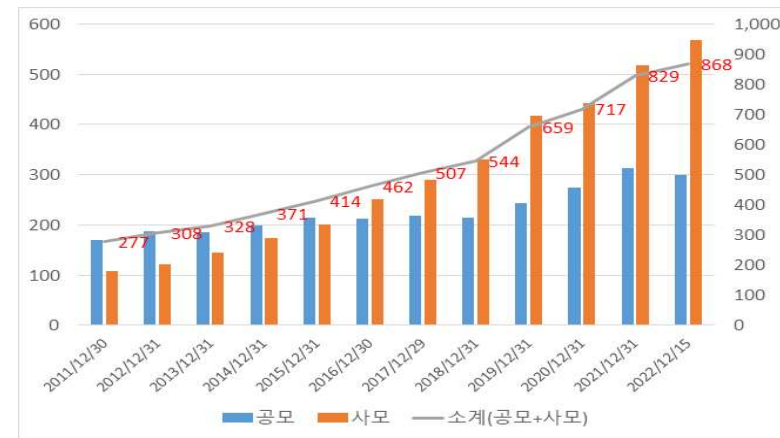


'11년도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2년말 기준 356개사까지 확대

자산운용사 현황

구분	'17말	'18말	'19말	'20말	'21말	'22말
공모	75	74	75	76	76	81
일반사모	140	169	217	251	273	356
합계	215	243	292	327	349	437
증감	48	28	49	35	22	88
증감율	29%	13%	20%	12%	7%	25%

펀드 시장규모



부동산신탁사도 3개사가 증가하여 14개사가 되었으며, 신탁 수탁고도 크게 증가

구분		2009년	2022년	증가율
수탁고 (조원)	토지신탁	16.8	101.5	504%
	담보신탁	82.0	274.1	234%
	기타신탁	25.2	16.3	-
	합계	124.0	391.9	216%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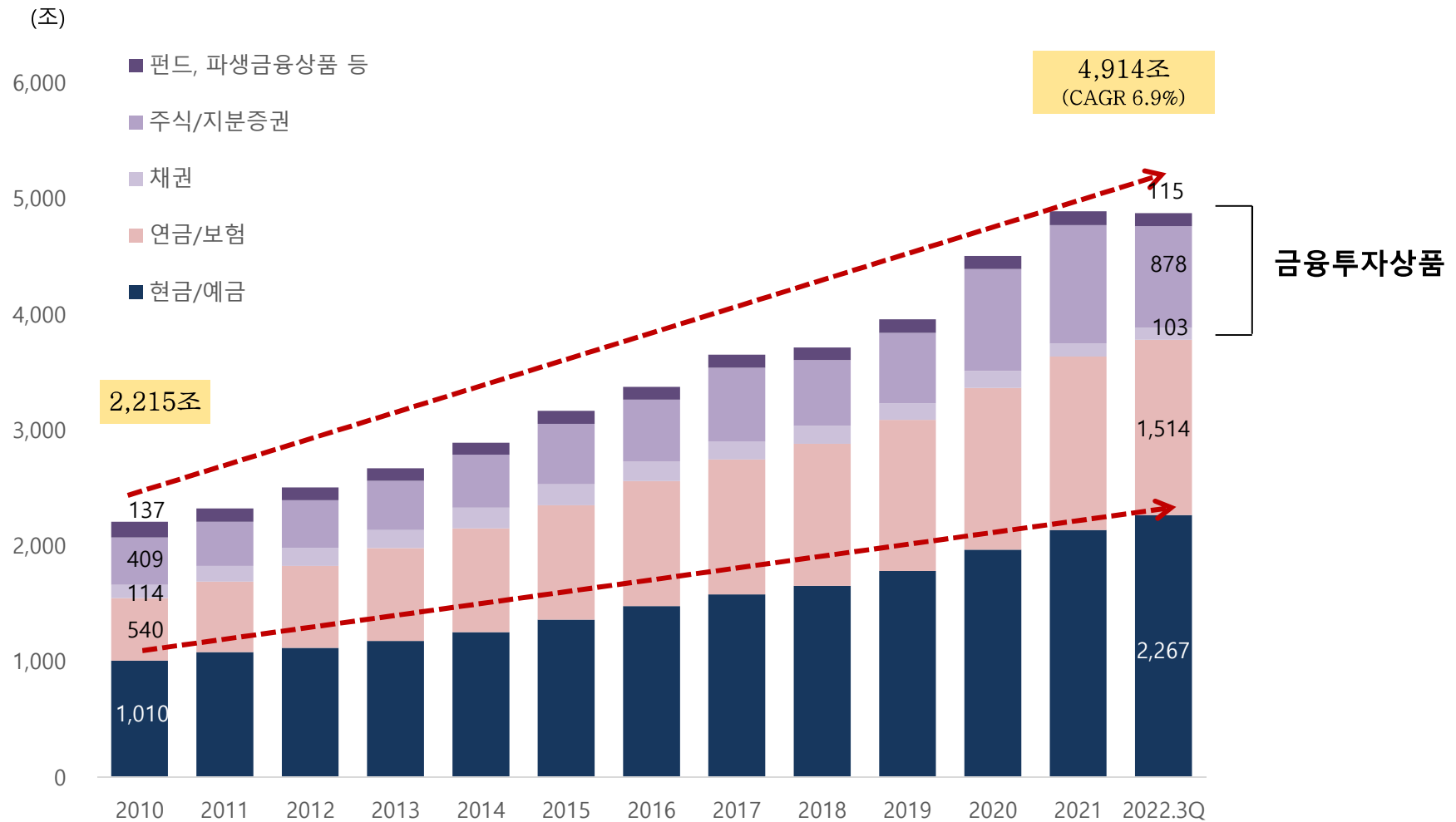
금융투자산업의 위기와 한계

변화의 한계와 성장통



가계금융자산의 성장, but 여전히 예금 중심

지난 10여년, 예금 비중 **46%→46%**, 금융투자상품 비중 **3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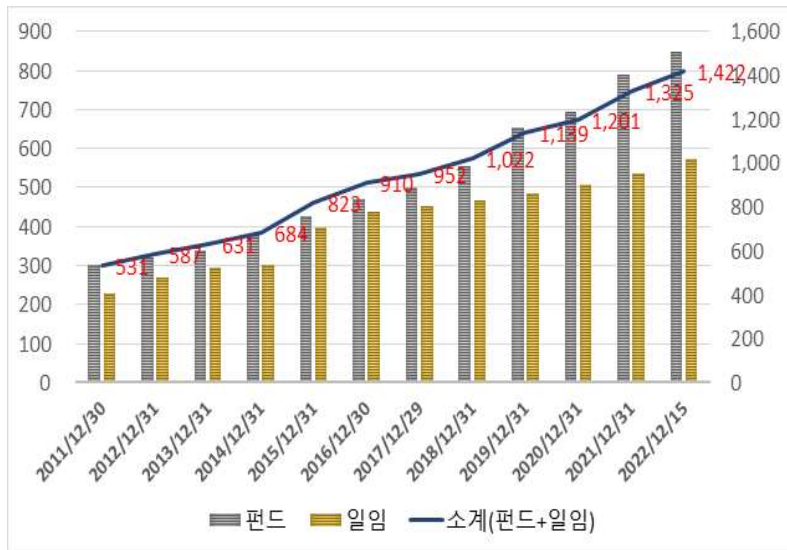


공모펀드 정체와 사모펀드 투자자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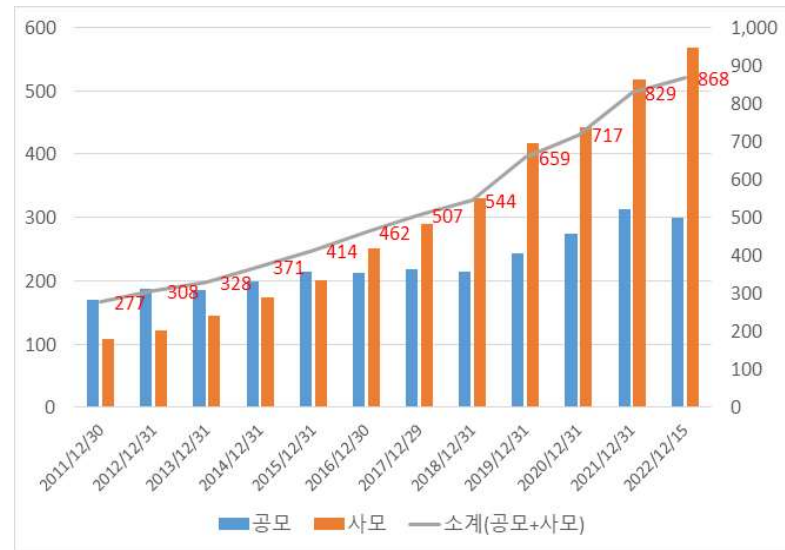
💡 '16년 이전에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였으나, '15년 사모펀드 체계 개편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공모펀드 시장을 압도

💡 사모펀드시장은 '15년 이후 연평균(CAGR) 15.1%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거치며 투자자 신뢰가 크게 하락

펀드 및 일임 수탁고(조원)



공모 및 사모펀드 수탁고(조원)



국민들의 연금, 금융투자상품을 통한 노후 준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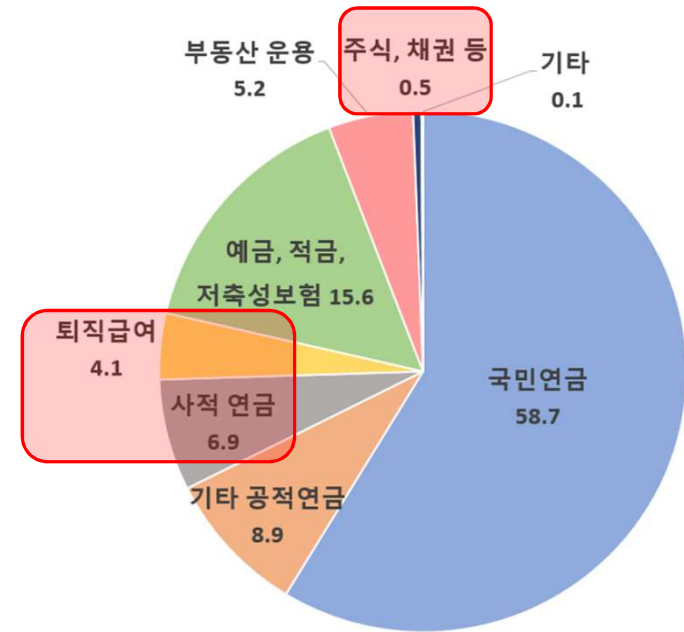
연금, 금융투자상품 중심인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금융투자/연금 부족

각국 금융자산 비중 구성 비교(2021)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현금·예금	43.4	13.2	54.2	27.1	21.6
금융투자 상품	25.4	58.0	16.3	15.6	18.2
(주식)	20.8	40.2	10.4	11.1	17.3
(채권)	2.3	2.3	1.3	0.2	0.1
(펀드)	2.3	15.5	4.5	4.3	0.8
보험·연금	30.4	28.6	26.7	53.1	58.2
기타	0.8	0.2	2.8	4.2	2.0

국민들의 노후 준비방법



자료 :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

💡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그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 📌 **아시아권 IB리그테이블 20위권내 全無**

< 참고: 아시아지역 주요 증권회사 자기자본 현황 >

국가	회사명	자기자본(조원)
	중신증권	33.9
	국태군안증권	25.6
	화태증권	24.7
	해통증권	24.3
	초상증권	19.7
	광발증권	18.3
	중국은하증권	15.3
	노무라홀딩스	28.0
	다이와증권	16.5
	미래에셋증권	9.0
	NH투자증권	6.8
	한국투자증권	6.3
	삼성증권	6.0
	KB증권	5.9
	유안타증권	4.7

※ 국내 증권회사 '22년 3분기 기준(해외 증권사는 20년, 19년말 Annual report 기준)

※ 자료 : Google 금융, 블룸버그, 각 사 Annual Report 등

<아시아(일본제외) IB League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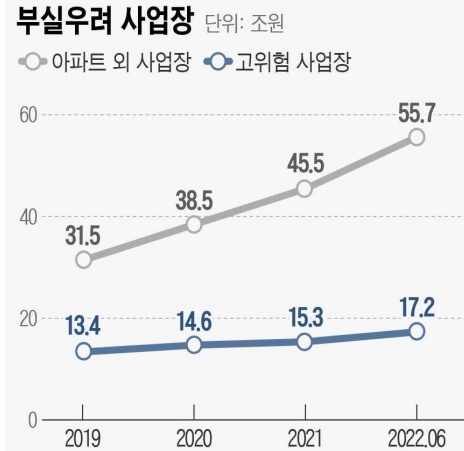
Asia Pacific (excl. Japan) league table by value

Ranking			2022		2021	
2022	2021	Company Name	Value (USDm)	Deal Count	% Value Change	Value (USDm)
1	1	Goldman Sachs & Co	149,680	62	-30.2%	214,467
2	4	Citi	138,841	40	-12.7%	159,027
3	2	Morgan Stanley	116,227	56	-42.5%	202,088
4	3	JPMorgan	115,200	44	-31.5%	168,150
5	10	Bank of America	93,905	37	43.3%	65,553
6	9	CITIC Securities Co	93,384	49	5.4%	88,602
7	6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91,743	77	-18.3%	112,354
8	16	Credit Suisse	90,156	41	94.1%	46,447
9	46	BNP Paribas	79,045	15	762.1%	9,169
10	19	HSBC	78,882	16	153.4%	31,128
11	30	Jefferies	71,212	22	343.2%	16,068
12	29	Moelis & Company	68,115	22	256.2%	19,125
13	7	Barclays	66,150	36	-34.1%	100,353
14	41	Nomura Holdings	65,236	19	513.5%	10,633
15	69	Arpwood Capital	63,245	5	1234.8%	4,738
16	38	JM Financial	62,296	9	398.1%	12,507
17	8	Macquarie Group	52,878	45	-41.9%	91,003
18	5	UBS Investment Bank	41,547	53	-73.5%	156,602
19	13	Evercore	34,655	13	-34.0%	52,510
20	28	RBC Capital Markets	27,417	29	43.2%	19,150

자료: 딜로이트('22년 M&A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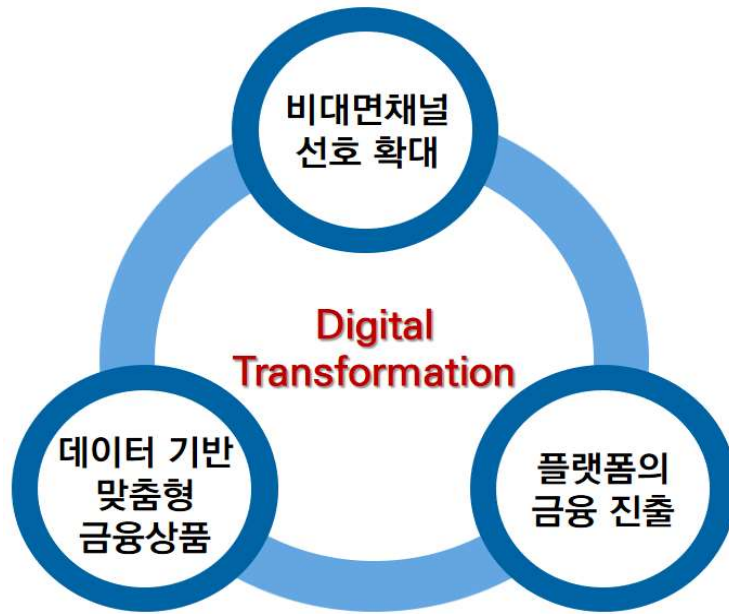
반복되는 PF·유동성 위기,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비판여론

- '22.下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며 유동성공급 등 정부주도의 시장안정조치 시행
- 과거 저축은행 PF 사태 때보다는 양호하나 일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 美 긴축 장기화 및 예상을 상회한 물가상승, 지정학적 갈등지속 등 불확실성이 지속



- 증권산업은 글로벌금융위기, 코로나발 시장 불안 등 금융위기시 유동성 리스크를 자주 보여옴
- 이에, 증권사들이 늘어난 자기자본과 완화된 자본규제를 생산적인 기업금융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 존재

핀테크 · 빅블러 시대, 뉴노멀 대응의 필요성



- ✓ 모바일 창구가 일반 창구를 대체
→ **비대면채널**에서 금융상품 가입, 결제·송금
- ✓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수요를 분석
→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 ✓ MZ세대는 디지털기술에 친숙하고, 직관적 소비 추구
→ **플랫폼 기반의 Fin-Tech 기업** 성장



넓은 한국 자본시장 인프라와 규제

1 단일 거래소 체제

- 한국 자본시장의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단일 거래소 체제 유지로 경쟁을 통한 거래소의 건전한 성장 지연
- ATS 설립시 거래비용 절감, 주문 유형 다양화, 추가적인 거래시간 제공, 주문속도 및 체결가능성 향상, 주식거래 대체 기관으로서의 시장안정성 등 여러 효익 제공 가능

2 은행 중심적인 지급결제망

- 지급결제는 금융인프라로 은행으로부터 기타금융기관 및 핀테크 등으로 개방되는 추세
- 자본시장법 시행 14년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개인 지급결제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온 점을 고려하여 법인지급결제 이슈를 해소할 필요

3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제도 다양성 부족

- 국내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수단 확대 이슈는 너무 나도 오래된 정책적 문제
- BDC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공급수단을 보다 다양화 해야 하는 시점

넓은 한국 자본시장 인프라와 규제(계속)

4 퇴직연금 경직적 운용규제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다층적인 자산운용 규제체계(상품규제+비율규제)를 적용하는 보수적인 형태
- 경직적 열거주의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형 상품 편입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

5 ESG 등 글로벌 뉴노멀 대응 미흡

- ESG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ESG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투자가 확대
- 국내 자본시장의 ESG 공시 확대 등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
- 탄소배출권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확대 등 국내 ESG 투자확대 수단 마련 긴급

6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규제 다수 상존

- 공매도 제도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이한 규제 다수 존재
- 영문 공시제도 부재, 외환거래 접근성 부족 등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유인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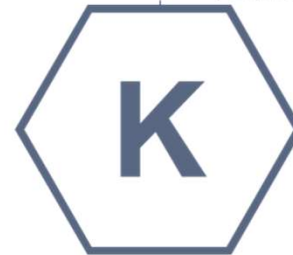
7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 기업 투자 수단 부족

- 자본시장법 상 넓은 공사모, 매출 규제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 기회 제한
-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 허들에 대한 정합성 제고를 통해 개인 사모투자 수단 확대 필요

[소결] 우리 금융투자산업의 한계

부족한 글로벌 경쟁력

국내 금융투자산업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심으로 경쟁력을 점차 확보하며 해외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시아권 내 증권사 중에서도 규모면에서 열세



미흡한 기업금융역량

대형 증권사들은 확대된 자본을 활용하여 대체투자 영역을 개척 중이나 중소혁신기업 자금공급 한계, 기업구조조정 경험 부족 등 기업금융역량에 한계를 보임

넓은 자본시장 인프라와 규제

자본시장 인프라가 거래소, 증권예탁, 예탁금 예치 등 과거 소형 브로커리지 증권사 시절에 구축된 비경쟁적 환경이 유지되며 경제상황에 맞지않는 폐쇄적 관행 지속되고, 금융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넓은 규제 존치

가계자산 중 낮은 금융투자상품 비중

ISA 세제혜택, 퇴직연금 성장 등으로 국내 쏠 연령층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점차 강화되고는 있으나, 부동산, 예금 등에 비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미미

Part 3

해외 선진사례의 교훈

은행중심 모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시장을 강화하고 있는
EU 자본시장 동맹



EU 자본시장동맹 움직임

1 도입 배경

- ✓ 유럽집행위(EC)는 글로벌 및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 유럽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중장기 이니셔티브 마련('I4.II)
- ✓ 은행 중심 기업자금조달체계에서 탈피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활성화 등 기업 자금조달 창구 다변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추구

2 정책 목표

- ✓ EU 단일 자본시장을 구축하여 1)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2) 장기인프라 투자 확대, 3) 국경간 투자 활성화를 달성

3 8대 액션플랜

- ① 혁신, 스타트업,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② 공적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활성화
- ③ 장기, 인프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 ④ 리테일 투자환경 조성, 발전

- ⑤ 실물경제지원을 위한 은행 역량강화
- ⑥ EU 자본시장 역량 강화
- ⑦ 국경간 투자 활성화
- ⑧ 핀테크 발전

EU 자본시장동맹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리스크 분산이 용이한 자본시장을 정책적 육성

- ✓ 중소기업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도를 간소화 하는 등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EU 집행위 주도 민관합동 모태펀드인 VentureEU를 설립
- ✓ 회사채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시부담 완화, 유통시장 개선 등 규제 개선에 노력

2 기관투자자, 금융기관의 장기투자를 위해 자본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

- ✓ 금융투자회사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화된 건전성 규제 적용하여 부담완화
- ✓ 은행, 보험사의 대출, 투자에 대한 건전성규제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투자 촉진

3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 연금 및 장기투자펀드 제도 개혁

- ✓ 장수할수록 연금 혜택이 커지는 옵션을 보유한 범유럽개인연금상품(PEPP) 도입
- ✓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개인투자자들이 함께 투자 가능한 유럽장기투자펀드 제도(ELTIF) 도입

4 ESG 등 뉴노멀, 핀테크 대응은 글로벌 공통의 고민거리

- ✓ 지속가능한 투자와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ESG, 핀테크에 대한 규제 고도화 노력

Part 4

금융투자산업의 미래

Asia Top 3 IB 탄생을 위한 제언



10년내 Asia Top 3 IB 탄생 지원

1 해외진출 촉진 정책 마련 및 규제 완화를 통해 Regional IB로 성장지원

- 인도, 동남아시아 등 성장가능성 있는 지역에 적극적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기회 포착
- 정부, 국민연금, KIC, 산업은행 등과 초대형 IB간 해외 프로젝트 컨소시엄 협의체 구성 · 운영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자회사(해외법인) 신용공여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추진(100%차감 규제완화)
- 외화증권 예탁기관 다양화로 Regional Prime broker 로 성장 지원

2 증권사 IB 역량 강화

- 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장기공급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BDC의 초기 제도 안착
- 중소기업특화 증권회사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전폭적인 정책 지원(정부자금 매칭 등 인센티브 확대)
- IB-WM 협업 강화 및 투자자 편의 확대
- 현재의 증권사 자본규제는 여전히 과거 브로커리지 모델 → IB관련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 * IB업무 관련 신용공여 및 보증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은행 대비 불리한 상황



10년내 Asia Top 3 IB 탄생 지원

3 디지털 금융, 빅블러, ESG 등 뉴노멀 적극 대응

- STO에 대한 K-Normal 정비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신속하게 자본시장 제도로 수용할 필요
- ESG 공시 의무 확대 등 ESG 글로벌 스탠다드 안착에 적극 대응
-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투자상품 등 ESG 관련 상품 활성화

4 은행권 중심의 폐쇄적인 인프라를 금융권 공유화

- 법인 지급결제 허용
- 증권회사 외화 비즈니스 확대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외국환업무 허용
 - * 외화 송금한도 확대, 일반환전 허용 등 조속 추진
- 증권회사에 대한 외화 콜시장 직접 참여 허용



연금·WM 활성화를 통한 국민 노후준비 지원

1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강화

- 적극적인 사적연금 자산 축적 정책을 통해 향후 국가의 “노후복지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제
- 납입한도 확대 및 연금수령시 적정수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연금수령 유인 강화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중도인출 최소화 및 연금수령 강화 등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확보

2 퇴직연금 제도 및 수익률 개선

- 효율적인 연금자산 배분을 위한 現 다층적 자산운용규제 전면적 개선
- 투자자의 연금 투자에 효과적인 자산배분형 장기 상품 공급 확대 추진

3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WM 규제 완화

- 노후대비 종합자문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독립자문업자(IFA) 활성화
- 투자자의 중장기 자산관리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경직된 수수료 규제 개선
 - * Fee-based 계약시에도 상품에 따라 수수료(Commission) 수취허용(美 Hybrid RIA제도)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규제 정비를 통해 자산관리 선진화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사모펀드 성장 지원

1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토큰 증권, AI 등 디지털 금융을 활용한 자산운용업 발전 전략 수립
-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선, 주식형 공모펀드 상장 활성화 등을 통해 공모펀드 활성화 추진
 - * 기존 공모펀드에 대해 ETF를 활용한 상장활성화 방안마련을 통해 판매채널 문제도 해소 가능성
- 연금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를 활성화하고 업무위탁을 통해 대형펀드와 중소형 펀드간 상생 환경 조성
- 장기 투자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2 자산운용 특화 허브 재추진

- 국부펀드, 국민연금, 가계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자산운용허브 육성 정책 재추진
- 글로벌 펀드 유치에 위한 자산운용 특화 지구 설정 방안 논의 필요

3 사모펀드 성장 지원

-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담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가입자격 등 제도를 재검토해 볼 필요
 - ☞ 투자자 자격 규제를 제외한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중장기적 완화 필요(사모펀드 규제 체계 일원화)

K-자본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

1 주식시장의 다양한 거래 환경 조성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신속한 인가 및 거래소 선진화 등 동반성장 환경 조성
*매매상품 제한, 시장감시권한 문제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 병행
- 자본시장법상 매출규제 개선 등을 통한 비상장주식 유통(거래) 활성화 지원

2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위기 사전 예방

- 한국은행-증권금융을 통한 무담보 단기 자금공급 프로그램 제도화(상시적 시장 안정효과 제공)
- 증권회사 콜시장 참여를 통해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원활한 조달 구조 마련



투자자 보호 강화

1 투자자 보호기금 설립 검토

-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보호 실효성 및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예금자보호 제도로는 보장되지 않는 사기 등 투자자 손실에 대한 투자자 보호기금 도입 검토
 - * 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투자자예탁금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검토 필요

2 투자자교육을 통한 Smart Investor 양성

- 유소년, 청소년 시절부터 올바른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교육을 학습과 접목
- 협회에서도 투자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재미있는 콘텐츠를 생성해, 다양한 경로(온라인, 오프라인)와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노령층 등 교육대상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효과 있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

3 모험 자본 육성을 위해서는 각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책정되는 환경 조성 필요

- 사모펀드 등 사고를 거치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례 다수 발생
-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투자자 등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각 주체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

감사합니다.